

문화방송 노보

무단협 1784일째
지명파업 611일째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MUNHWA BROADCASTING UNION



해고자 즉각 복직! ‘노사 공동선언’ 제안

너무 오래 견뎌야 했다. 이용마 2102일, 정영하·강지웅 2073일, 박성호 2016일, 최승호·박성제 1995일. 앞장서 ‘공정방송’을 외친 대가는 참혹한 인격 살인이었다. 해고자들은 심신이 병들었고, MBC 구성원들은 마음 속 깊은 부채 의식을 안고 이 세월을 버텨야 했다.

해고자 복직은 MBC 정상화의 첫 단추이다. 온갖 해고와 징계들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도 끄덕 않고 오히려 제징계를 남발했던 경영진, “증거 없이 해고했다”는 범행 자백 녹취가 나와도 부끄러움조차 없는 과렴치한들, 별다른 이유도 없이 2년 반 넘도록 최종 선고를 미루고 있는 대법원. 이런 비상식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모든 것을 제자

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늦었지만 때가 됐다. MBC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사장 후보자 정책설명회에서 후보자 3명 모두 ‘해고자 복직’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노동조합은 제안한다. 어떤 후보가 선임되든 새 사장의 첫 공식 직무 행위는 해고자 복직이 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신임 사장이 8일 오전 첫 출근길에 노동조합 대표와 함께 해고자 즉각 복직을 담은 ‘노사 공동 선언’ 합의문을 대내외에 선포할 것을 제안한다. 사장 후보자들은 이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 노동조합에 밝혀달라.

해고자의 직원 신분 회복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해고무효 소송에 대해 MBC가 상고를 취하하

면 고등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법적으로 완결된다. 우리는 민사 사건인 ‘해고 무효’ 소송과 ‘손해 배상 청구’ 건과 달리 형사인 ‘업무 방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 우리는 ‘공정방송’ 시수를 위해 투쟁했던 170일 파업의 법적 정당성을 역사적인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고히 할 것이다. 법원은 이미 ‘공정방송’의 가치가 공영방송 사업자 뿐 아니라 종사자들에게도 부과된 의무이자,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고 판시했다. ‘공정방송’ 복원을 위한 MBC 재건은 해고자들의 즉각 복직에서 시작돼야 한다.



사상 최초 공개 정책설명회 시민과 구성원 참여 역사적 첫걸음

MBC 사장 후보자 3명이 직접 국민들 앞에 섰다.
그동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만 참석하는
'밀실'에서 진행되던 사장 후보 정책설명회가
일반에 공개된 것이다.

사상 처음으로 사장 후보자들이 시청자와 MBC 구성원들 앞에서 공영방송 MBC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밝혔다. MBC가 정치권력의 간섭에서 벗어나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뜻깊은 변화이자 MBC 사장 검증 작업에 시청자와 구성원이 함께 참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사건이다.

‘MBC의 미래는?’ 뜨거운 관심

지난 1일 오전, MBC 구성원과 시민 200여 명이 사장 후보 정책설명회가 열린 상암사옥 1층 골든마우스홀을 가득 메웠다. 공개홀에 들어가지 못한 구성원들은 로비에 모여 앉아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정책설명회를 대형 화면을 통해 함께 지켜봤다. 과연 사장 후보들이 제시한 MBC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와 궁금증으로 가득했다.

변창립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은 정책설명회는 이우호 전 논설위원실장, 최승호 뉴스타파 PD, 임흥식 전 보도국 부국장 순서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됐다. 세 후보자 각각 20분 동안 자신이 구상한 MBC 재건과 발전 계획을 제시했다. 각자 차별화된 정책도 많았지만, 해고자 즉각 복직과 인적 쇄신은 공통적인 약속이었다. 블랙리스트, 부당 징계 및 직원 사찰 등 적폐 경영진이 벌인 일들을 낱알이 기록하고 바로잡겠다는 것 역시 한목소리였다. 보도와 편성제작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 실시 등 공정방송과 제작자율성 보장, MBC 재건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보장 등도 마찬가지이다. 지역 MBC, 비정규직과 정규직, 외주 제작사들과의 상생도 공통적인 약속이다. 그동안 철저히 망가졌던 MBC를 제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요구되던 과제와 구호들이 사장 후보들의 청사진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었다.

양방향 소통, 구성원-시민 적극 참여

정책설명회는 후보자들의 일방적인 발표 자리에 그치지 않았다. 로비에 설치한 "사장 후보자에게 질문 있습니다!" 게시판을 통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모았다.

우선 MBC에 쌓여 있는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방송을 실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직급과 근무 형태별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김제철 이후 벌어진 불투명 채용과 인사평가 등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전국 네트워크 복원과 회사 경쟁력 강화 방안 역시 MBC 구성원들이 묻고 싶은 질문이었다.

노동조합은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질의를 모아 사장 후보자들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누가 사장으로 선임되든, 신임 사장에게 바라는 MBC 구성원들의 기대와 희망이 담긴 질문들을 취합해 공개 질의할 예정이다.

국민들의 참여도 실시간으로 이뤄졌다. 정책설명회가 시작된 1일 오전 11시부터 imbc.com에 '후보

자에게 묻습니다' 페이지가 열려 공통질의와 각 후보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주제별로는 보도 공정성과 MBC 재건을 위한 청사진(해고자 복직, 적폐 청산, 조직 화합)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20~40대가 대다수를 보였다. 5일 정오까지 취합된 질문들은 7일 사장 최종 면접에 활용될 예정이다.



후보자별 정책 요약

이우호 후보

1981년 입사
전 뉴욕특파원
전 보도국 사회1부장
전 논설위원실장

“조직 바로 세우기가 첫 번째 선결조건”

첫 번째로 연단에 오른 이우호 후보는 25년 전 본인이 직접 썼던 글로 발표를 시작했다. 당시 그는 <내가 사장이라면 노조를 이렇게 죽이겠다>는 역설적인 제목의 글에서, 노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상적인 MBC의 모델을 꿈꿨다. 사장이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앞장서 도입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후보는 “폐허가 된 MBC를 바로 세우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후보로 나서게 됐다”면서 “단호하고 신속하게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혁신을 아래로부터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단호하고 신속하게 과거 청산하겠다”

이우호 후보가 밝힌 MBC 재건의 선결 조건은 조직 바로세우기다. 이를 위해 노·사 대표는 물론 시청자 대표까지 참여하는 ‘MBC 바로세우기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계획이다.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부역 세력을 심판하고, 해고자들은 물론 부당하게 전보됐던 직원들을 즉각 원직 복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 하차했던 라디오 DJ 등에 대한 복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2012년 파업 이후 입사한 시용 경력 직원들에 대해서는 왜곡 보도 가담 정도에 따라 인사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김재철 이후 MBC 사측이 자행했던 노조 탄압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직원들에 대한 사찰, 영상 왜곡 지칭, 블랙리스트 작성, 해킹 프로그램 트로이킷 등을 조사가 필요한 문제로 꼽았다.

공정성과 자율성이 사라진 조직 문화를 다시 세우기 위해 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 동의제를 도입하고, 부당한 지시에 대한 저항권을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정방송협의회 등 단체협약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러 부문의 젊은 직원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신선한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톡톡 위원회’를 만드는 등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영방송 MBC가 추구해야 할 콘텐츠의 방향에 대해, 비정규직의 애환을 담아 호평 받았던 드라마 <미생>을 예로 들며 ‘나를 대변하고 위로해주며 나를 대신해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 콘텐츠’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계적인 중립이란 비겁한 기자들이 찾아가는 피난처일

뿐”이라며 “사안의 뿌리를 찾아가는 뉴스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PD수첩>, <2580> 등 시사프로그램의 탐사 기능을 강화하고, 명품 다큐멘터리를 부활시키는 것을 MBC 재건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AI·MCN 등 새로운 시도 필요”

이 후보는 MBC의 혁신을 위해 빅데이터·AI 같은 신기술을 제작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시청자들의 관심사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세분화하고, <뉴스테스크>를 세대에 따라 쪼개어 방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혁신 실험실, 몰입도 실험실 등을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콘텐츠 유통 플랫폼 역시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을 활용해 MBC의 기자, PD, 아나운서 등이 1인 미디어 채널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플랫폼에 콘텐츠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글로벌 콘텐츠 유통을 강화하기 위해 드라마·예능·다큐멘터리 등을 실시간으로 아시아 전역에 직접 공급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외주사·자회사 상생해야”

이 후보는 MBC 내·외부 구성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도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프리랜서 막내 작가의 임금을 소개하며 이른바 ‘열정페이’를 없애고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근무 실태 등을 조사하는 TF를 구성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외주사에 대한 불공정 계약을 시정하고, 고압적인 편집권 행사를 지양하는 등의 ‘외주사 상생 규범’을 명문화하겠다고 강조했다.

MBC 지역 네트워크 대해서는 낙하산사장 선임 등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콘텐츠 발굴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회사에 대해서는 본사와 콘텐츠 혁신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등의 상생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자별 정책 요약

최승호 후보

1986년 입사
전 <PD수첩> 책임프로듀서
현 <뉴스타파> 앵커
현 영화감독

“시청자 신뢰 회복부터 시작해야”

최승호 후보는 ‘언론이 질문을 못하게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라는 영화 <공범자들>의 대사로 설명회를 시작했다. 최 후보는 MBC가 ‘만나면 좋은 친구’에서 ‘만나기 싫은 친구’가 된 것은 바로 ‘신뢰의 추락’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지금 MBC의 추락은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잘 만들지 못해서, 혹은 경영수지를 맞추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위기의 극복도 바로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것, 시민을 단순 고객이 아닌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와 시사, 드라마, 예능, 라디오 등 전 부문에 걸쳐 이 ‘시민을 섬기는 정신’이 스며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역 없는 탐사보도…디지털 혁신 박차”

최 후보는 그동안 균형을 잃고 바닥까지 추락한 뉴스를 살리는 방안을 간단하게 정리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계적 균형 뒤에 숨지 않고 진실을 찾아가는 보도, 정부의 발표를 확인하고, 분석하고, 비판하는 ‘뉴스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백화점식 나열 뉴스를 끝내고, 이슈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교양의 부활 방안으로는 탐사보도의 강화를 들었다. 성역 없는 과감한 탐사와 정확한 보도를 통해 한국 사회 심연에 있는 사실을 포착해 건져 올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모든 것들은 ‘지상파 프리미엄’이 없어진 지금, ‘디지털 퍼스트’와 함께 ‘시청자 퍼스트’를 통해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즌제 · 단막극 도입…예능 파일럿 활성화”

‘드라마 왕국’으로 불리던 MBC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일단 드라마 숫자를 줄이고 막장 드라마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영성한 100편’보다는 ‘고품질의 한 편’이 더 사랑받는 시대라면서, 드라마 시즌제 도입과 단막극 부활을 약속했다. 예능부문에 대해서는

‘예능의 생명은 실험’이라고 진단하며 예능피디들에게 창의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휴식과 ‘실패할 자유’를 주겠다고 말했다. 과거 타 방송사들이 넘볼 수 없는 장벽이었던 라디오 부문의 부활도 확신했다. <시선집중> 같은 시사프로를 살려내고, 최고의 진행자들을 모셔오는 한편, 신선한 목소리를 과감하게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국장책임제 부활…임명동의 · 상향평가 도입”

최 후보는 ‘어제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는 소설가 알베르 까뮈의 말을 인용하며 노사공동재건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동안 MBC에서 벌어진 방송장악과 각종 범죄 행위들을 엄정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또 사실상 명맥이 끊긴 신입사원 공채를 추진하고, 취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장 책임제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주요 국장 인사의 임명동의제, 상향평가제를 도입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모든 것은 회사의 일방적인 정책이 아닌, 노조와 협의를 통해 단체협약으로 명문화하고 BBC 수준의 프로그램 준칙을 마련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도 제고시킬 것을 약속했다.

“지역 · 계열사 혁신 동참…창작자들과 상생”

최 후보는 이 모든 혁신이 수많은 지역사와 계열사가 함께 할 때만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사에 대한 본사의 수직적 경영간섭을 최소화하고, 지역MBC가 그 지역의 핵심 언론으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또 프로그램을 위해 일하는 많은 창작자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대표와도 정기적으로 협의해나가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최 후보는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치면 정치권에 기웃거리지 않고 저널리스트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면서 정책 설명회를 마쳤다.

후보자별 정책 요약

임흥식 후보

1984년 입사
전 2580 부장
전 보도국 부국장
현 프런티어 저널리즘 스쿨

“MBC의 주인은
권력이 아니라 시민”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에 분노와 좌절 속에서 시간을 보낸 젊은 후배들을 생각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는 길은 MBC가 제대로 서는 것뿐입니다. 그 일을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임흥식 후보는 “얼굴도 잘 모르고 함께 일한 적도 없다”는 젊은 후배들에 대한 애기로 발표를 시작했다. 김재철 체제 이후 한참 일할 나이에 신천교육대와 유배지 등을 전전하다 어느덧 마흔 줄에 접어든 후배들을 떠올리며 출마를 결심했다는 임 후보는 “MBC를 다시 살리는데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잘못 바로잡는 것은 이념의 문제 아냐”

임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해고자 복직’을 꼽았다. 또 현 경영진을 전원 교체하고, 2012년 파업 후 채용된 인력들에 대해 채용 과정과 실무 능력을 면밀히 따져보는 등의 강도 높은 개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또 김재철 체제 이후 MBC에서 벌어진 일들을 바로 잡는 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사장으로 취임할 경우 경영진과 보직간부, 직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MBC 혁신 TF’를 조직해 지난 9년 MBC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조직개편과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또, 권력으로부터의 ‘MBC 독립’도 약속했다. “지난 9년 방송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정치 권력과, 그 하수인 역할을 한 사람들 때문에 MBC가 망가졌다”고 진단한 임 후보는 “권력으로부터 MBC를 독립시키기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위원회의 토론 내용과 결정사항을 제작에 실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MBC의 위상과 경영진 선임방식 등을 연구하는 ‘방송독립 특별 위원회’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부터 살리겠다”

이와 더불어 MBC가 철저히 망가지고 시청자들로부터 외면당한

이유로 ‘MBC 뉴스의 신뢰하락’을 꼽았다. 임 후보는 “뉴스가 신뢰를 회복해야 다른 프로그램도 빛을 발한다”면서 진실만을 전하는 뉴스, 신뢰도 1위의 뉴스, 어떤 정파와 진영에서도 귀를 기울이는 힘있는 뉴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팩트체크 기능을 강화하고, 보도국 편집회의를 공개하는 방안을 구성원들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자회사 등과 상생하겠다”

지역사에 대해서는 ‘광역화’ 문제를 현안으로 꼽았다. 임 후보는 이를 위해 이미 광역화돼 있는 지역사들의 경영과 운영 실적 등을 분석해 본 뒤, 해당 지역사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라고 말했다. 또 본사와 지역사의 수평적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고민중이라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혁신 TF’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고, 저임금과 고용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대책부터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의 갑질은 고발하면서 정작 방송계약자들을 짓밟는 이중인격의 MBC는 되지 않겠다”며 “외주 제작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온건할지는 몰라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

아울러 임 후보는 “나에게 온건한, 현실적인, 합리적인이라고 표현한 기사들이 있는데, 온건할지는 몰라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며, “미래를 말하며 과거를 묻어버리거나 미래를 내세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겠다”고 개혁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임 후보는 이 밖에 MBC 콘텐츠에 대한 유통과 판매를 통합 조정하는 ‘콘텐츠 전략총괄본부’를 신설하고, 편성위원회 구성과 보도 제작국장 등의 임명 동의제 도입 등을 노조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종 프로그램 제작진의 자율성과 창의성 보장 등을 약속했다.

“사장 후보자에게 질문 있습니다!”

1. 방송장악 청산

- ①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을 동원해 MBC의 방송 독립을 해치고 편성과 프로그램 내용까지 간섭한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협조한 MBC 전현직 임원과 간부들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고발, 징계할 계획이 있습니까?
- ② MBC의 보도와 편성제작 책임자들은 지난 5년 간 세월호 참사, 최순실 국정농단과 촛불집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국정교과서, 두 차례의 대통령 선거 등에서 심각한 편파 왜곡 보도, 검열과 통제를 자행했습니다. 이러한 통제와 편파 왜곡 보도에 대해 진상조사를 거쳐 책임자들을 징계할 계획이 있습니까?
- ③ 2010년 이후 두 차례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MBC 경영진은 불법적인 대량 해고, 징계, 부당전보를 자행했습니다. 심지어 백종문 녹취록에서 증거 없이 해고했다는 백종문 자신의 진술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면 재조사, 인사권 남용에 대한 회사 차원의 사과와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습니까?
- ④ 2012년 이후 MBC 내에서는 수많은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윤길용 전 울산MBC 사장의 횡령과 배임증재 의혹, MBC플러스 안광한 전 사장 출장비 유용 의혹, 김세의 기자 뉴스 인터뷰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는 사내 감사까지 진행됐지만 모두 진상을 밝혀내지 못하고 중단되거나 종결됐습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 전면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 ⑤ 2012년 이후 MBC에서 벌어진 노조 탈퇴 강요, 트로이카를 이용한 구성원 사찰,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영상기자 블랙리스트 등 수많은 노동 탄압,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하고 관련자들을 고발, 징계할 계획이 있습니까?

2. 공정방송과 제작자율성 보장

- ①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MBC의 정치적 독립이 크게 침해됐고, 그 결과 공정방송이 무너졌습니다. MBC의 정치적 독립을 항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특히 시청자와 방송 종사자들이 사장 선임 등 MBC의 거버넌스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② 2012년 170일 파업에 대해 사법부는 일관되게 공정방송은 사업자와 종사자 양측 모두에게 부여된 의무이며, 종사자들의 제작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공정방송의 핵심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또는 공정방송협의회, 국장책임제 복원, 보도와 편성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와 중간평가제 실시, 보도국 편집회의 공개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 ③ 방송강령, 편성규약, 윤리강령, 프로그램 준칙 등에 대해 노사가 함께 전면 재검토하고 개정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방안을 밝혀주십시오.

3. 인사·채용

- ① 김재철 사장 이후 신입사원 공채가 사실상 중단됐고, 대규모 경력직 채용과정은 일부 경영진과 간부들만이 관여해 밀실에서 불투명하게 이뤄졌습니다. 채용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 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 ② 신입사원 공채 부활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신입사원 공채 시기와 규모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③ 2012년 이후 승진, 인사평가, 포상, 각종 연수 선발, 특파원 선발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습니다. 이에 대한 전면 재조사, 원상 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습니까? 또한 이러한 제도들에 대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개혁할 계획이 있습니까?
- ④ 상향평가가 폐지되면서 MBC 내에 억압적 상명하복 조직 문화가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노동조합은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삼암동 사옥 1층에 설치한 게시판과 SNS를 통해 MBC 구성원들이 사장 후보자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을 취합했다. 나흘 동안 약 300건의 질문이 접수돼, 이번 사장 선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적폐 청산부터 공정방송과 제작자율성 보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까지 새 사장에게 바라는 구성원들의 요구가 쏟아졌다. 또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운행을 폐지하라”, “환경미화원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해달라”와 같은 요구도 있었다.

노동조합은 구성원들의 질문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사장 후보자들에게 공개 질의한다. 또 방송문화진흥회에도 전달해, 오는 7일 사장 후보자 최종면접에서 종사자들을 대리해 이사들이 질문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4. 노동환경 개선

- ① MBC에서는 업무직, 연봉직, 무기계약직 등 이른바 중규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 등 처우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파견직, 계약직,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 더 나아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조에 대한 개혁 방안은 무엇입니까?
- ② 방송 제작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는 근로 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도 없이 살인적인 강도의 노동이 반복되고 있고, MBC는 ‘갑’의 입장에서 비인간적 제작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작 현장의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지역사 자율경영 및 네트워크 복원

- ① 현 지역사 사장들 중 상당수는 2012년 이후 권력의 방송장악에 협조한 대가로 임명됐습니다. 지역사 임원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역할 없이 비용만 증가시키는 상무이사제를 폐지할 계획이 있습니까?
- ② 지역사 사장 선임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꾸고, 지역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공모제 도입, 정책설명회 개최 등 종사자와 지역 시청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③ 2012년 이후 지역사 정관이 개악되면서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한하고 자율경영이 악화됐습니다. 정관의 원상회복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사외 이사제도의 개선 계획, 관계회사국과 보도국 전국부의 기능 재편 등 자율경영 보장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

- 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MBC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 회복을 위해 가장 우선 순위를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콘텐츠 소비형태가 실시간 시청에서 온라인, 모바일 시청으로 바뀌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 ② MBC 생존의 핵심인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제작비 현실화를 위한 자원 마련 계획은 무엇입니까?
- ③ 드라마, 예능 부문에서 우수한 인력이 지난 5년 간 줄줄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제작 핵심인력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 ④ 지상파에서 스포츠 방송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스포츠 이벤트 중계 권료 상승과 광고시장 위축으로 보편적인 시청권 보장과 회사 수익이 상충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사장 후보자에게, 질문 있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꿈꾼다”

암투병 이용마 기자 리영희상 수상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이용마 기자는 이전보다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MBC 동료들의 뜨거운 환호와 박수에 환하게 웃어 보였지만, 땀을 흘린 듯 두 눈은 더욱 동그레 보였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이용마 기자는 구급차를 타고 휠체어에 의지한 채 어렵게 시상식에 참석했다. 어린 쌍둥이 두 아들을 위해서였다.

“두 아들이 이 순간 영원히 기억하길”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열린 제5회 리영희상 시상식. 이용마 기자가 쌍둥이 두 아들 현재, 경재의 손을 잡고 수상에 올랐다. 이 기자는 “‘사상의 은사’로 불리는 리영희 선생은 언론인이자 지성인의 표상으로, 제가 가장 존경한 분 중의 한 분이다. 그런 분의 상을 받게 됐으니 저로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영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두 아들을 언급할 때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이 기자는 “오늘 이 자리에 어렵게 나온 또 다른 이유는 제 어린 아이들 현재, 경재를 위해서 아빠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며 “저와 함께 상을 받고 꽃다발까지 받았으니 영원히 잊지 못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건강 상태도 언급…항암치료 계획

현재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용마 기자는 “이제 제 생명의 불꽃이 조금씩 소진되어가는 걸 느끼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마지막으로 (항암치료에) 도전해 보려고 한다”라

며 자신의 상태를 설명했다. 중간 중간 두 아들을 내려다보고 머리를 쓰다듬는 그는 비집고 나오려는 울음을 억누르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인명은 재천이라고 하니까 하늘의 뜻에 맡기고 그 운명을 받아들이 줄 아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겸손함”이라고 했다. 두 아들은 “아빠 우리가 스무살이 되기 전에 열른 나오세요”라고 답했다. 지켜보던 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힘내라’는 구호를 외쳤다.

“세상을 바꾸는 길에 동반자 되시라”

현실의 문제에는 여전히 단호했다. 이 기자는 “아이들이 꿈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자신들이 즐기는 일을 하면서도 존중받는 사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아직 그런 사회가 되기에는 갈 길이 멀다.

우리가 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자유와 평등,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사회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꿈꿔본다”고도 덧붙였다. 수상소감이 끝난 뒤 그는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자신의 책을 들고 온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길에 동반자가 되라’는 사인을 남겼다.

리영희상 심사위원장인 신인령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이용마 기자가 온갖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과 투쟁 현장을 지킴으로써 방송민주화 투쟁의 상징이 되었다는 점 때문”이라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1996년 MBC에 입사한 이용마 기자는 2012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홍보국장으로 공정방송을 위한 과업을 이끌던 도중 ‘사내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지난해 복막 중피종이란 희귀암 진단을 받고 현재 투병 중이다.

